

하박국 1 장 1-4 절: 하박국의 호소

1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. 2 살려 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, "폭력이다!" 하고 외쳐도 구해 주지 않으시니, 주님,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? 3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?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?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,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. 4 율법이 해이하고,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. 악인이 의인을 헐박하니,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.

- 하박국 선지자: 1 장 1 절에서 자신을 예언자 하박국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. 스바냐, 예레미야, 나훔 같은 선지자들이 하박국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였습니다. 하박국이 어떤 사람이었는지, 정확하게 어느 시기에 살았던 사람인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. 하지만 하박국 3 장 19 절에 "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,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[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(개역개정)]"라는 구절이 있는데, 이것으로 보아 하박국이 성전에서 섬기던 레위 자손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.
- 시대 배경: 하박국서는 주전 612-605 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시기는 앗시리아가 세력을 잃어가고 바빌로니아가 새로운 강국으로 세력을 확장하던 시기이며,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입니다.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이 "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" (하박국 1:6)라고 하시는데, 주전 612 년은 앗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바빌로니아에 의해 함락되던 해입니다. 주전 605 년에는 바빌로니아의 제 1 차 유다 침략이 있었고 이 때 다니엘을 비롯한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. 남유다는 결국 주전 586 년에 바빌로니아에게 멸망하게 됩니다.
- 하박국서 구조: 두번의 하박국의 질문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두번의 대답, 그리고 하박국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1 장 2 절-4 절에 하박국의 첫번째 질문이 등장하고 5 절부터 11 절까지 하나님의 답이 나옵니다. 그리고 12 절부터 17 절까지 다시 하박국의 탄식과 질문들이 등장하고, 2 장 2 절 부터 2 장 20 절까지 하나님의 두번째 답이 등장합니다. 그리고 3 장에는 하박국의 기도문이 나옵니다.
- 1 절에서 묵시라는 말이 나오는데, 하박국이 전해야 하는 말씀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

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냅니다.

- 2 절-4 절에서 하박국은 불의와 악이 가득한 현실을 보면서,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을 보고만 계시는지 하나님께 탄원을 쏟아냅니다. 2 절에 나오는 폭력은 자기 동료나 이웃을 해치는 도덕적으로 파괴된 상태를 뜻합니다. 이 시기가 여호야김 왕의 통치기간 (주전 609 년-598 년)과 비슷한데, 그는 일꾼에게 샅을 지불하지 않는 등 압박과 강포를 행하였고 (예레미야 22:13-17), 선지자를 죽이고 (예레미야 26:20-23),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를 난로 불에 던져 태웠던 왕이었습니다 (예레미야 36:1-26 참조).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악한 자들을 억압했던 그 당시 현실에 대한 하박국의 탄원입니다. 3 절에 나오는 불의와 악은 왜곡된 공의와 사회적인 억압을 뜻하고, 다툼과 시비는 같은 백성사이에 일어난 분쟁을 뜻합니다.
- 4 절에서 이 모든 악이 "율법이 해이하어"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구절의 뜻은 율법이 마비되어 그 원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.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인데, 그 율법이 마비되었기에 폭력으로 요약되는 여러 악행들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율법이 마비되어 불의가 가득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왜곡되었다고 합니다.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 백성의 핵심 가치인데 (창세기 18:19),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들과 바른 관계를 맺어 살아가는 모습을 뜻합니다.

창세기 18:19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,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,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,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.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,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.
[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
(개정개역)]

- 하지만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떠났고,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폭력과 불의, 분열과 분쟁 가운데 있으며,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번영하는 모습을 보며, 하박국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모든 악을 그대로 보고만 계시니까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.